

폐선부지에 숲·폴리 접속...공동체 문화 꽃 피웠다

북구 광주역~남구 동성중 7.9km 구간
시민들, 관 주도 획일적 도시계획 대신
나무·문화 흐르는 푸른길 조성 뜻모아
2002년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통해
예술적 상상력 있는 전시장 탈바꿈

광주폴리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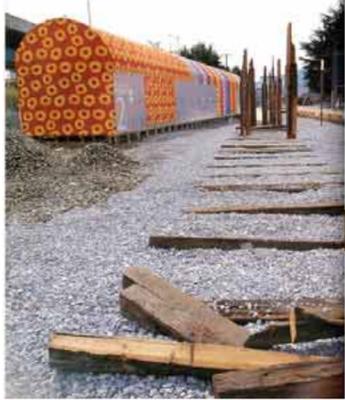
<3> 푸른길 공원

▶ 푸른길 공원에
설치된 우편함.



2011년 1차 폴리 '푸른길문화센터' 설치
매주 장터·음악회·대화한마당 등 개최
도시재생 모델 떠올라 필수 견학코스
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

◀2002년 광주비엔날레 프
로젝트 4 '접속'에 출품된
정현 작 '일어서는 침묵'.



“폐선부지는 빈 땅이 아니라 광주에 남아 있는 근대 유적
이다. 철길이라기 보다는 연속되는 풍경이고, 경계와 단절
보다는 연결과 접속을 상기시키는 곳이다. 때문에 선이라
기 보다는 이어진 면이나, 폐기될 길이 아니라 새롭게 열려
줄 미래이다. 어떤 형식으로도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다
양한 시각으로 되돌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
의 땅이다.” <정기용의 '근대 유적, 질문의 땅' 중에서>
지난 2001년 10월, 제4회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4 '접
속'의 큐레이터로 남광주 역사 구간을 둘러 보던 정기용
(1945~2011·건축가)의 표정은 거대한 캔버스를 마주한 예
술가였다. 그로부터 5개월 후, 착적했던 '과거의 공간'은 예
술적 상상력이 숨쉬는 전시장으로 거듭났다. 육중한 기차
의 무게와 온갖 세파를 견뎌온 침묵은 광주민중화 운동의
정신이 깃든 곳으로 탄생(정현 작 '일어서는 침묵')했고, 수
산물 집하장인 남광주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플랫폼(공성순
작 '남광주 부두')으로 변신했다. 아드리안 게즈, 김영춘, 류
영국 등 국내외 작가 20여 명이 참여한 비엔날레 프로젝트
는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일상과 '접속'시킨 예술적 씨앗이
됐다.

사실 기차가 끊긴 폐선부지는 광주의 근현대사와 궤를 같
이해왔다. 지난 1930년 12월 25
일 개통된 광주~여수간 철도
의 일부 구간인 이곳은 광주와
하순, 보성, 여수를 연결하는
교통망 역할을 했다. 학생들에
게는 통학 열차였고 남광주 상
인들에게는 생계를 잇게 해준
물류 수단이었다. 하지만 세월
이 흐르면서 소음과 공해, 나
가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
는 장애물로 전락하기 시작했
다.

폐선부지가 2002 광주비엔
날레의 테마로 부상하게 된 데
에는 시민들의 힘이 컸다. 그때
까지만 해도 도시공간의 변화
를 이끈 동력은 관(官)이었다.
도시가 지닌 복합적인 문제를
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데 익숙
했던 광주시는 폐선부지를 경
전철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
었던 것이다.

하지만 비엔날레 프로젝
트를 계기로 시민들은 관 주도의
획일적인 도시계획에 맞서 나
무와 문화가 흐르는 푸른길 만
들기에 뜻을 모았다. 비엔날레
의 전시장으로 활용된 폐선부
지 10.8km에 설치할 작품의 형
태와 공간을 둘러싸고 큐레이
터와 시민, 환경단체, 전문가들
이 의견을 나눴다.

2002년 광주비엔날레 폐막
이후 광주시는 시민과 환경단
체, 예술가들의 의견을 받아들
여 철거 대신 녹지로 조성하는
'푸른길 공원조성 방안'을 내놓았다. 폐선부지 구간 10.8
km 가운데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
에서부터 남구 진월동 동성중의 구간 7.9km. 면적으로 환산
하면 3만 여평(9만9127㎡)에 이르는 규모다.

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 온 푸른길 공원은 국내에선 보기
드문 공동체 문화를 꽃피웠다. 자생적인 민간조직인 푸른
길가꾸기운동본부(현 사단법인 푸른길)는 시민과 철로 주
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주민참여형 시민운동의 모
범사례를 만들어 냈다. 특히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가 주도
한 '푸른길 100만그루 헌수운동'은 푸른길 공원의 새 장을
여는 기폭제가 됐다.

또한 2002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4의 무대였던 옛 남광
주 역사(남광주 푸른길 공원)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점
공간 역할을 톡톡히 했다. 매주 정기적으로 열린 푸른길 별
별장터, 푸른길 음악회, 푸른길 대화 한마당이 대표적인 행
사. 철도정에서 기증받은 기차 2량은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

로 활용되는 등 푸른길 공원의 명소로 자리잡았다.

뒤편이해도 푸른길 공원에 날개를 달게 해준 건 1차 광
주폴리다.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이었던 승
효상 건축가는 특별프로젝트로 옛 광주읍성터에 거점공원의
건축조형물 10개를 설치하면서 도심과 가까운 푸른길 공원
에도 눈을 돌렸다. 이를 위해 승 감독은 당시 건축가, 재단
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동구 동명동 서석교회~남광주시장
까지 1km 구간을 현장답사하며 밑그림을 그렸다. 승 감독
은 당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“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
고,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할 계획”이라며
“기능적인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”
고 설명했다. 그리고 자신이 직접 푸른길 공원의 폴리 작품
을 디자인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.

승 감독의 '낙점'을 받은 곳은 바로 푸른길 농장다. '농
장다리'라는 이름은 지난 1960년대 인근에 있었던 광주교
도소의 제조자들이 농장사역을 하기 위해 이 곳을 건너게
된 데에서 유래했다. 그는 광주읍성터에 들어선 10개의 폴
리가 장식적인 기능에 치중했다는 쓴소리를 의식해서인지
농장다리에서 동네로 내려가는 계단과 다리 밑 공간을 무
대로 한 '푸른길 문화센터'를 선보였다. 푸른길을 오가는



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1차폴리 프로젝트로 설치된 승효상 작 '푸른길 문화센터'.
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

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푸른길 전경.

시민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파하는 오아시스로 꾸미기 위
해서다.

자신의 구상을 현실화 하기 위해 그는 관리가 용이한 내
후성 강판으로 제작했고 농장다리와 푸른길을 연결하는 계
단을 객석과 형태로 디자인했다.

푸른길 공원에서 만난 주민 정성현(62·광주시 동구 지산
동)씨는 “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방치된 폐선부지로 인해
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았다”면서
“하지만 나무와 숲이 어우러지고 폴리와 같은 예술작품이
들어지면서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진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푸른길과 광주폴리와의 조합은 근래 전국 각지에서 학생
들과 시민단체, 공무원들 사이에 도심재생 모델의 견학코
스로 떠올랐다.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'2013년 대
한민국 공간문화대상'에서 '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
동네 만들기 사업'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.

/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@kwangju.co.kr

2017-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

객실패키지 | 2017.12.1 ~ 2018. 2. 28

- 스탠다드룸 ₩ 80,000
- 디럭스룸 ₩ 90,000
- 조식별도 1인 15,000 / 세금포함 -

설연휴패키지 | 2018. 2. 14 ~ 18 (5일간)

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위한 특별한 선물!

- 스탠다드룸 ₩ 60,000
- 조식별도 1인 ₩12,000 -

연회장 할인축제 | 2018. 1. 1 ~ 3. 31

웨딩,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

- 혜택 : 식료 10%, 음주류 30% 할인

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☎ 062) 228-8000 연회 ☎ 062) 228-4711~2